

# 12 기획-비전공자에게 권하는 전공 도서 ⑭ 신규환 『북경 똥장수』



북경 똥장수 삽화.

(제공=푸른역사 출판사)



신규환 『북경 똥장수』

## 똥장수의 일상이 보여주는 20세기 베이징의 위생혁명



조 정 언  
교수 · 사학

똥장수 사회의 리더인 분창주, 분노 채취구역을 소유한 분도주, 임대 분도에서 일하는 똥장수 노동자로 구성되었으며, 서로 종속·보호 관계에 있었다. 똥장수 사회는 분창주의 입김대로 움직였고, 그 속에서 분도주와 일반 똥장수 노동자는 고된 노동과 착취로 얼룩진 힘든 삶을 살아갔다. 즉 이들의 일상생활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똥장수 집단 내 사회적 관계의 통제와 관리를 받았다.

똥장수가 없으면 베이징은 금세 더럽고 냄새나는 분노로 뒤덮이게 될 것이었다. 그 말은 똥장수가 없으면 콜레라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할 위험도 더 커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은 베이징 시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역마다 정해진 똥장수가 분노처리를 담당하다 보니, 이를 빌미로 시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일도 잦았다. 시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분노관리체제를 개혁하고자 했고, 그 과정은 국가권력과 똥장수 사회의 충돌과 협력으로 점철되었다. 일부 똥장수 리더는

본인의 이익을 지키고자 혹은 지은 죄를 뉘기 위해 국가권력에 협조했다. 이는 중일전쟁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베이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분노처리업의 안정화를 위해 똥장수 리더를 회유했다. 점령당국은 똥장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똥장수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었다. 물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친일 정부에 협력했던 똥장수 리더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 덕분에 최하층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작 분창주의 눈치만 봐야 했던 일반 똥장수들은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게 되었다. 에필로그에서 '나'는 "혁명을 위한 삶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며, 똥장수 사회의 미래에 기대감을 표명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저자(신규환,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는 중국 근현대의료사 전문가이면서,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비교사의 관점에서 국가권력과 위생행정의 문제에 천착해왔다. 이 책은 베이징시정부의 국가위생행

정을 다각도로 분석한 전작 『국가, 도시, 위생: 1930년대 베이핑시정부의 위생행정과 국가의료』 중 똥장수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 책은 최근 『북경의 붉은 의사들: 20세기 청년 의사들의 도시 건설과 위생실험』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따라서 이 책을 기술했던 베이징의 위생행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면 『북경의 붉은 의사들』을 아울러 살펴보기를 권한다.

『북경 똥장수』는 베이징 지역에 똥장수의 일상 생활사를 결합한 미시적 관점과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위생행정의 실시라는 거시적 관점을 함께 풀어낸 걸작이다. 이제까지 중국사에서는 특정 직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았고, 도시하층민의 일상에 관한 연구도 특정 시기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똥장수라는 특정 직업을 대상으로 베이징의 위생개혁과 정치혁명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목소리를 복원한 이 책은 흥미롭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 평가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식인과 대중(노동자, 농민, 여성

등)이 기본적으로 반제·반봉건의 깃발 아래 공산당의 계급투쟁에 동조하였다고 결론지었는데, 저자는 베이징의 도시하층민에게 혁명이란 일상의 변화라기보다 일상의 혼란이었으며, 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재의 생활방식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강했음을 밝혔다. 지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위생행정이 도시공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성안이나 성 밖, 교외 사이에 '지역적 분절성'이 존재하고 있었음도 지적했다. 일례로, 똥장수의 활동도 도시의 공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한편 전작부터 이어지는 저자의 커다란 문제의식이 어디까지나 국가권력과 위생행정에 있다 보니, 일상사나 지역사적 분석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똥장수의 일상생활보다는 국가권력의 위생행정이나 이에 동참한 똥장수 리더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또 이 책은 주로 똥장수의 사례를 다루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물장수나 장의사에 대한 언급은 아쉽게도 많지 않다. 20세기 전반 베이징에 살던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는 똥장수뿐만 아니라 물장수나 장의사와 같은 다양한 직업노동자에게서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을 계기로 다양한 직업집단의 목소리를 발굴하여 20세기 전반 베이징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나'라는 화자가 등장하는 소설 형식을 빌렸지만, 내용상으로는 풍부한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서에 가깝다. 또한 다양한 사진과 지도를 이용하여 베이징의 공간 구조, 도시 인프라, 도시 계획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베이징이라고 하는 근대 도시의 여러 모습을 소개해주는 뛰어난 해설서이기도 하다. 20세기 베이징의 모습을 엿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